

오세훈-이윤석 '낙지머리' 놓고 충돌

국감서 유해성 여부 공방...시식회는 '함께'

민주당 이윤석 의원이 11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낙지머리의 유해성을 주장해 파문을 일으킨 서울시의 수장인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집중 포화를 퍼부어 관심을 끌었다.

국회 행안위 소속이자 낙지 생산지로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무안·신안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세발낙지를 꺼내 탁상에 놓은 뒤 "우연히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듯, 국 단적인 오세훈식 성과주의가 던진 돌에 낙지상인이 다 죽었다"며 "과거 국회의원 시절에는 동료 의원들에게 상자를 주고 떠나더니, 이번에는 엉뚱한 사람 어민들이 '오세훈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다"고 오 시장을 공격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식품의 먹거리 기준은 식약청이 정하는데 무엇 때문에 서울시에서 서둘러 발표해 어민이나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느냐"며 "오세훈 성과주의가 대선발 급행열차"며 오 시장을 몰아세웠다. 그는 또 "증급속이 문

을 수 있는 쇠칼을 검사도구로 쓰는 등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환경이 극히 열악하다"고 주장하며 오 시장의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오 시장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기술수준이 열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계속해서 기간간에 대립이 되면 어민과 상인이 피해를 볼 것 같아 서울시가 자제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오 시장은 이어 "먹거리는 서울시가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 발표를 한 바 있다. 저희가 발표한 대로 낙지의 내장은 드시지 않는 게 좋다. 특히 임신부 등에는... 되도록이면 낙지 내장은 드시지 않았으면 하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라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편,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감이 끝나자 국회 의원회관에서 낙지머리 시식회를 열었다. 시식회에서 는 오 시장도 세발낙지를 먹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나라당 김정권, 민주당 이윤석 의원(오른쪽부터)이 11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장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서울시에 대한 오전 국정감사를 마치고 나서 의원식당에서 세발낙지를 먹고 있다. /연합뉴스

서구청장 재선 후보등록 시작...판도는?

민주 김선옥 후보 여론 강세 속 무소속 단일후보 성사 여부 주목

10·27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가 12일~13일 이틀간의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14일부터 13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앞두고 '필승 전략'을 짜는 등 선거일까지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현재 출사표를 던진 후보는 민주당의 김선옥 후보, 비민주당 야 4당 단일후보인 국민참여당의 서대석 후보, 무소속 김종식·박금자 후보 등 4명이다.

◇민주당 vs 비민주당 대결 관심=우선 민주당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에게 패한 경험이 있는데다, 당시 패배했던 후보를 또다시 내세운 만큼 설욕을 다짐하고 있다. 민주당은 서구 갑 지역위원회와 광주시당을 중심으로 밑바닥 민심을 훑으며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며, 새로 출범한 중앙당 지도부의 지원 유세 등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법사위의 광주고법·지법, 광주고검·지검에 대한 국정감사 중 쉬는 시간을 이용해 김선옥 후보와 양동시장장을 전격 방문해 민주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당력을 집중하는 것은 지난 7·28 광주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비민주당 단일후보에게 호된 경험을 한 학습 효과 탓으로 풀이된다.

비민주당 야 4당도 지난 7·28 보궐선거에서 후보의 당선을 위해 각 당 지도부의 지원 유세 등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창조한국당 공경성 대표가 광주를 방문했고,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도 광주를 방문,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 관계자를 만나 비민주당 야 4당 단일후보인 서대석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또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등의 지지방문과 지원 유세가 계획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서구청장 재선거에서 민주당과 비민주당 야 4당의 당 차원 대결도 관심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소속 단일화 도나=무소속 후보들의 돌풍도 배제할 수 없다. 김종식 후보의 경우 민선 서구청장을 지낸 경험 탓에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데다 '지역 조직'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금자 예비후보도 후보자 등록에 앞서 11일 민주당을 탈당,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무소속 단일후보가 거론되고 있어 이



11일 광주고·지법 및 광주고·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위해 광주를 방문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감 점심시간을 짬내 김선옥 민주당 서구청장 후보와 함께 양동시장장을 방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상인들과 서민들을 만나 배추를 비롯한 채소류 가격과 자녀학비 부담 비용 등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들의 단일화 성사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서구청장 재선거 무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송재진 전 광주시의원은 11일 "민주당이 비민주당적인 공천방식으로 김선옥 전 시의원을 공천한 것과 관련해 주민의 심판을 받기 위해 무소속 출마를 하려고 했으나 무소속 후보가 난립하면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다"며 예비후보를 사퇴했다.

송 전 의원은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에 경종을 울리려면 무소속 후보 간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박금자 전 의원의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김종식 후보와 무소속 연대를 모색하겠다"며 "후보 단일화 방식은 여론조사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식 전 서구청장도 무소속 후보 단일화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져 무소속 후보 간 단일화가 가시화될 개연성도 있다.

이에 따라 서구청장 재선거는 민주당 김선옥, 비민주당 야 4당 단일후보인 서대석, 무소속 단일후보 간 3파전으로 전개되면서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지 주목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선거인수 22만5550명"

광주시는 11일 "오는 27일 실시하는 서구청장 재선거의 선거인수가 22만555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서구 전체인구수 30만3907명의 74%이며, 지난 6·2지방선거 선거인수와 비교할 때 3290명이 증가한 것이다.

연령별로는 40대가 전체 선거인수의 23.3%인 5만263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30대 이상이 5만120명, 만19세 선거인은 4423명(2%)으로 집계됐다.

이번 서구청장 재선거에 선거권이 있는 자는 1991년10월28일 이전 출생한 주민등록자와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이며, 선거인 명부는 지난 8일까지 부재자 신고, 12일까지 명부열람과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오는 20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연령별로는 40대가 전체 선거인수의 23.3%인 5만263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30대 이상이 5만120명, 만19세 선거인은 4423명(2%)으로 집계됐다.

이번 서구청장 재선거에 선거권이 있는 자는 1991년10월28일 이전 출생한 주민등록자와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이며, 선거인 명부는 지난 8일까지 부재자 신고, 12일까지 명부열람과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오는 20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노벨 경제학상에 美 다이아몬드 교수 등 3명

올해 노벨경제학상은 노동시장 연구 분야에 두각을 나타낸 퍼터 다이아몬드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와 데일 모텐슨 미 노스웨스턴대 교수, 크리스토퍼 피셔라이즈 영국 런던경제대학(LSE) 교수 등 3명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다이아몬드 MIT 교수 등 3명을 2010년 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노벨위원회는 선정 배경으로 노동시장에 대한 이들의 연구 업적을 거론하면서 일자리가 있는 상황에서 왜 많은 사람이 동시에

실업 상황에 있는지, 경제 정책이 어떻게 실업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한 답을 내놓는데 이들의 연구 성과가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설명했다.

수상자들에게는 1천만 스웨덴크로나(약 16억7천만원)의 상금이 동등하게 분배되며 시상식은 알프레트 노벨의 기일인 12월10일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다.

올해 노벨상은 이날 경제학상을 끝으로 생리학·의학, 물리학, 화학, 문학, 평화상 등 6개 부문의 발표를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10·27 재선 현장

박금자 무소속 출마 선언

박금자 전 광주시의원은 11일 "서구의 새로운 아침, 새 희망을 열겠다"며 10·27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민주당 공천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가산점 적용 의혹 등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공천"이라며 "서구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서구청장 재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새로운 행복 서구, 따뜻한 복지 서구, 함께하는 희망 서구의 비전을 가지고 오는 27일 30만 서구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서대석 후보 펀드 모집

서대석 야 4당·시민사회 광주 서구청장 단일후보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깨끗하고 정직한 후보를 위한 투명한 선거자금 조달과 지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12일부터 14일까지 3일 동안 '서대석 펀드'를 모집한다"며 "1억원의 선거비용을 시민과 지지자들의 힘으로 조달해 깨끗한 선거를 치르겠다"고 주장했다.

'펀드'는 30만원부터 약정이 가능하고, 가입자는 선거가 끝난 뒤 정부로부터 서구청장 재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던 2011년 1월 4일 원금 전액과 법정이자(CD금리 2.66%)를 상환받을 수 있다. 가입 희망자는 서대석 단일후보 홈페이지(www.heeam.kr)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정길 "손 대표, 최고위원 지명 철회하라"

지난 6·2 지방선거 때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해 40%대의 득표율을 올렸던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사진)이 손학규 대표의 지명지 최고위원 지명에 강력 반발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김 전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학규 대표가 영남 및 지명지 최고위원으로 김영춘 전 의원을 임명한 것과 관련, "손 대표 취임 이후 단행한 첫 번째 인사



원칙과 명분이 없을 뿐 아니라 민주당의 가장 척박한 지역인 영남 지역에서 싸워온 당원 동지들의 명예를 짓밟고 모욕하는 인사"라고 비난했다.

그는 "영남개혁 세력은 과거 호남 포위에 맞서 영남 한복판에서 외롭게 싸워온 사람들로 김정길은 그 세력의 대표로 적어도 영남에서 민주당의 대표성을 논할 때 당사자가 되거나 의논상대가 될 자격은 있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손 대표는 단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영남의 대표성을 일방적으로 지명했다"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제발 멈추기만 해도 땡큐죠

빠지는 머리카락 개수에 신경 쓰이면 효과가 검증된 탈모증 치료제를 사용해 하니다

14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피부과에서 남성형 탈모증 환자(18세~65세 남성) 170명 대상 임상시험 결과, 모발 개수와 굵기가 증가되어 효과가 검증되었습니다

검증된 탈모증 치료제 **마이녹실**

■ 마이녹실 임상결과

참여자의 92.9%가 효과 확인

구분	효과 확인률
매우호전	2.94%
호전	27.65%
약간호전	62.35%
기타(호전없음, 악화)	7.06%

전국 14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피부과에서 남성형 탈모증 환자 170명을 대상으로 마이녹실 5% 24주간 임상시험 결과, 158명 중 92.9%가 호전되어 그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매우호전 5명(2.94%), 호전 47명(27.65%), 약간호전 106명(62.35%)

남성형 탈모증 환자에 대한 5% Minoxidil 외용액의 공개 다기관 임상연구(제4상 임상시험, 대한모발학회 공동연구) - 대한 피부과학회지 2009년 3월호 발표

■ 임상연구 참여기관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경복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관동대학교 명지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 원주외과대학 원주기독병원,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인하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이상 가다나 슌) 14개 대학병원 피부과 공동참여

바르는 탈모치료제 **마이녹실**

1일 2회 4개월 이상 꾸준히 바르십시오

검색어: 마이녹실

제품문의 | 080-024-5525 / 02-2600-3884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참분별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읽고, 의사와 상담하십시오.]